

쇠락한 구도심에 '푸른 꿈' 심는다

도시 속 마을만들기 그 현장을 가다



<1> 프롤로그

광주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광주를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등 국내 대도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일본 고베시의 마치즈쿠리 사업의 현장을 답사했다. 각 대도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면서 도로나 공원 등 단편적인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에 그 중심이 됐다.

그러나 최근 지역 시민단체 및 전문가 결합, 지역주민 의식 제고 등의 영향으로 각 도시의 개성을 가미하고 장점을 부각시키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일보는 이들 도시들의 현장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 등을 만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단했다.

주민이 도시설계 주도...민·관 전문가 지원 녹화·복지·일자리 등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광주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사업', 대전 '무지개 프로젝트', 대구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사업', 부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 도시들이 '마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인구 증가 및 고성장 을 전제로 한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이 도시 본 모습 파괴, 원주민 배제, 투기세력 이익 대변, 고층 아파트 일색의 도시 미관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도시 속에 남아 있는 마을들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마을은 구도심 내 단독주택지역이면서 거주자 대부분이 영세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경제성 미흡·주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지형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개발업체가 외면했던 곳이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거주주택이 최소 30년 이상 지나 주거조건이 열악, 젊은층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등 생각마저 사라진 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그동안 도시 지자체는 민간개발방식에 의존하면서 이들 마을에 원천적인 기반시설 투자에 그쳤으며, 이는 구도심 쇠락으로 이어졌다. 구도심 재생이 2010년 민선 5기 도시 지자체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하게 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이 민간개발방식인 재개발·재건축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본 전제는 민간업체나 관의 주도가 아닌 주민이 직접 사업 구상부터 실시·사후 평가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도시 지자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주민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또 단기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장기간 실시해 주민들이 계속 거주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이 이 사

업의 목적이다.

광주YMCA 서구문화센터 정의준 간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이라며 "그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야 비로소 초기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며, 국내·해외의 우수사례들을 지역의 특성, 해당 지역주민 인식에 맞게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고베시의 마노지구의 경우 40여 년 전 마치즈쿠리를 시도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과 주거지가 섞여 있었던 이 지역은 공해추방운동을 시작으로 녹화운동, 복지 등으로 그 분야를 넓혀나갔으며, 1982년 조례에 근거해 마치즈쿠리 추진회가 조직돼 지역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1980년의 마치즈쿠리 구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 번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수정·보완을 했을 뿐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2007년에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 지역 내 자리한 야쿠자 사무실을 이전시키기도 했다.

마노지구 마치즈쿠리추진회 사무국장장 시미즈 미즈히사(71)씨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마을은 자신이 지키고 만든다는 생각이 없으면 마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추진회를 이끌었던 리더들의 헌신적인 노력,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 무엇보다도 도와준 시청이 삼각축이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고베는



지난 1980년 마치즈쿠리 구상을 수립한 뒤 40여 년간 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일본 고베시 마노지구 골목길 전경.

광주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2010년 행복한 창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주시 북구 임동의 대원시장 전경.

/4명주기자 mjna@kwangju.co.kr

JET 초등영어시험 ETS TOEIC Bridge

제2회 호남 초·중등 영어학력검정평가

대회일자. 2011년 11월 12일(토) 시행 접수마감. 2011년 11월 3일(목) 마감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참가신청

신청기간 : 2011년 10월 4일(화) ~ 11월 3일(목)
신청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YBM JET, TOEIC Bridge
홈페이지(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참조

대회요강

1. 1차 전형 - 초등부 JET, 중등부 TOEIC Bridge
2. 2차 전형 - 초·중등부 : JET S&W(영어 말하기 쓰기 진행)
- 1차 전형 선발지만 해당
※전형방법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응시료

• JET 22,000원(VAT포함), TOEIC Bridge 29,000원(VAT포함)

시상내역

-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선발 인원 및 해외연수 지역 추후 확정)
- 총 1천 6백만원 상당의 상품 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kwangju.co.kr / 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시행지역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각 시군구 및 주요도시

대회운영본부

• 광주일보(www.kwangju.co.kr), Tel. 062-220-0555

시험 관련 문의

• YBM 한국TOEIC위원회(www.jet.or.kr / www.toEICbridge.co.kr)
Tel. 02-2279-0505

지방 방문 접수처

• 광주 - 광주일보 본사 (062-220-0555) / 글로벌 교육 (062-381-0515)
• 목포 - 웅지교육사 (061-283-6801)
• 여수 - 한려서점 (061-652-0339)
• 순천 - 정운교재사 (061-724-9820)
• 전주 - 오렌지교육 (063-241-6476)
• 군산 - 진학사 (063-461-0226)

주최. 광주일보 / YBM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YBM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한국영어교육학회

